미트쉐어 모임

2016.08.12 17시
윱스페이스

서울시 NPO 지원센터
공익활동, 더 쉽고 즐겁게

우리글,우리말
아름답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의 한국어 안녕하십니까?

김세윤

목차

1. 도입

2. 언어사용 실태와 부작용

3. 말이 가진 힘

4.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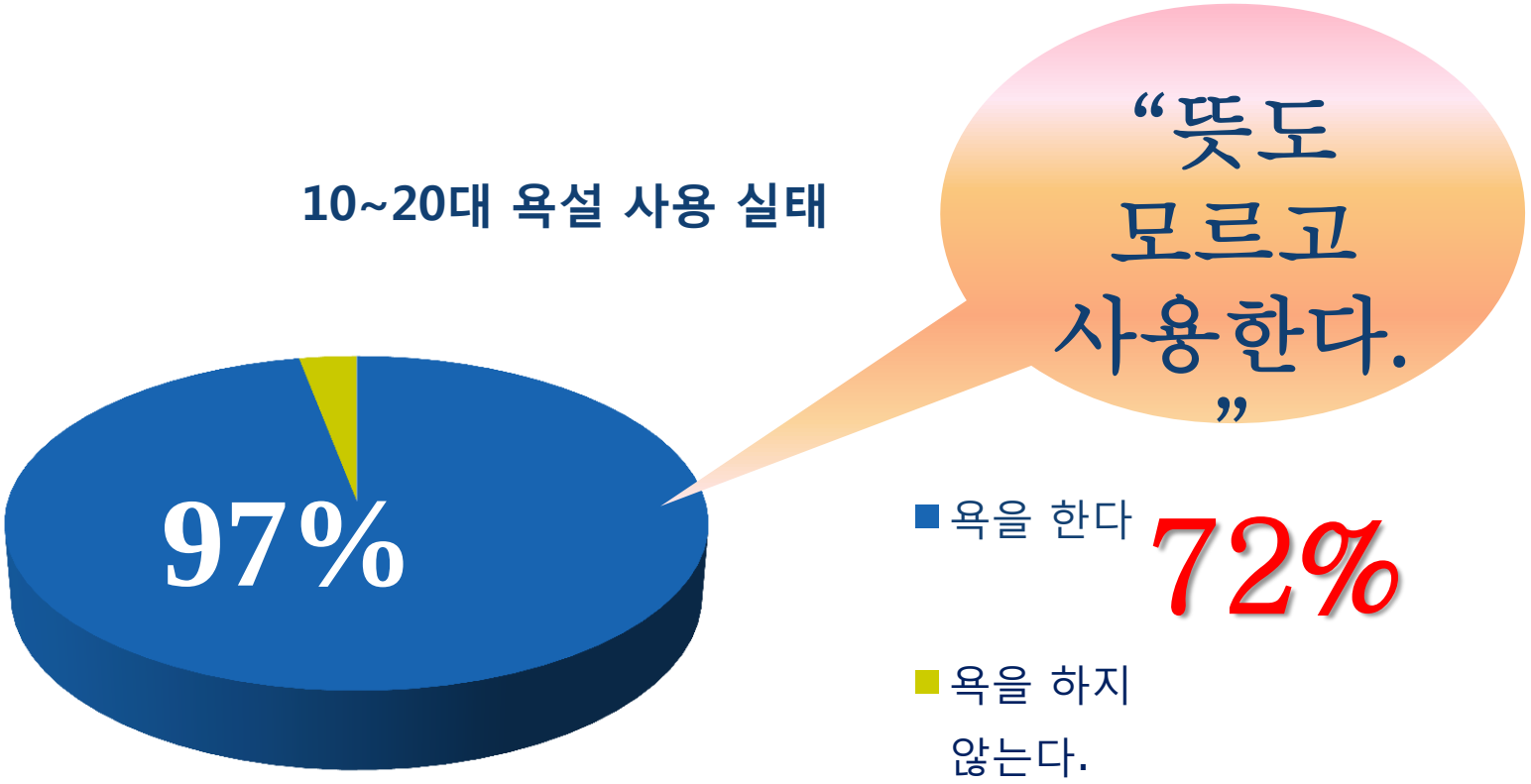
5. 결론

“누에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서 고치를 짓는 것처럼 사람은 일상에서 내뱉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존재이다.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밴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 집을 짓게 되고, 긍정과 평화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행복과 번영의 집을 짓게 된다.”

언어 사용 실태와 부작용

- 10~20대 언어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비속어

실태

예1: 어제 시험 존나 어려웠어. 기분 졸라 더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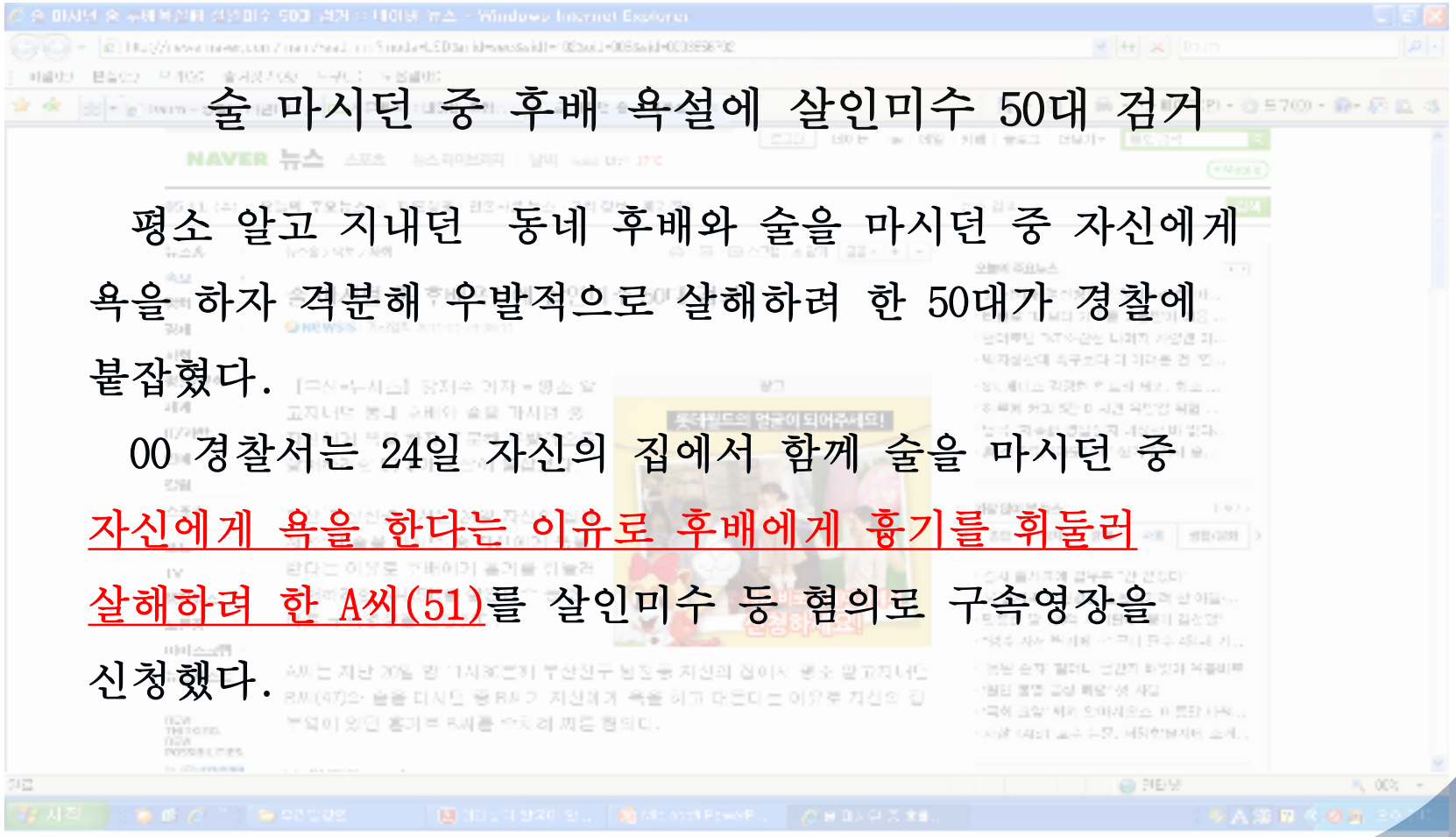
예2: X발, 학원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라고 X랄이야.

예3: 미친X, 안 한다니까. 또라이 새X, 저리 꺼지라고.

분석

- ‘w나’ 계열의 단어를 많이 사용함.
- ‘X발’, ‘X랄’을 문장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덧붙여 사용함.
- 상대를 지칭할 때, ‘미친X’, ‘개새X’, ‘병신’ 등과 같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저속하게 부르는 단어를 사용함.

부작용



술 마시던 중 후배 욕설에 살인미수 50대 검거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00 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A씨(51)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외래어

실태

예1: 야! 너 오늘 진짜 간지 작살이다.
예2: 오, 스멜~ 죽이는데.
예3: 얘가 바로 내 베프 잖아.
예4: 이 기사 짱이야, 완전 원츄!

분석

- 간지 : 일본어 'かんじ[感じ]'에서 옴 ⇨ 멋지다, 스타일이 좋다.
- 스멜 : '냄새'를 뜻하는 영어 'smell'을 그대로 사용함
- 베프 : 영어 'best friend'의 준말 ⇨ 좋은 친구, 친한 친구

언어 사용 실태와 부작용

부작용

원츄(want you) 신어

감탄사
인터넷에서, 훌륭한 생각이나
대단한 광경을 보았을 때 내는 소리

*** 외래어의 무분별한 남용**

- 한국어의 오염 / 세대 간 의사소통의 장애
- 외국어를 편의 대로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왜곡 함
- 외국어를 더 세련되고 멋있는 말로 인식하는 경향

"솔까말 그 갑툭튀 듣보잡 열폭하는 거 아냐? 정말 뭥미."

"솔직히 말해 그 갑자기 등장한, 잘 모르는 애, 열등감 너무 심한 거 아냐? 정말 뭐냐?"

축약어/ 은어

실태

예1: 야, 쩐다.

예2: 오늘 기분 개좋아.

예3: 진짜 완전 캐안습이다.

예4: 존나 여병추 같은 새x.

언어 사용 실태와 부작용

분석

쩔다

[활용구 1] (아리따운 여성이 지나가는 상황) "친구야, 저기 저 여자 좀 봐. 쩔지?"

[활용구 2] (못 생긴 사람이 지나간다) "아, 면상 봐. 쩔어."

[활용구 3]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일 때) " 아, 쩔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개- : (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캐- : '개-'의 거센 발음으로 '개-'를 보다 강하게 표현함

예) 개좋아, 개쩐다, 개짜증나, 캐안습이다, 캐더러워, 캐허접이다. 등

안습 : '안구에 습기 차다.' ⇨ 눈물이 난다. (대상이) 슬프거나 안타까울 때 사용

여병추 : '여기 병신 하나 추가요.'

지못미 :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작용

- 우리말의 다양성 침해

그 친구는 참 예뻐

저 여자는 정말 별로야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불쾌하잖아.

찔어

부작용

- 세대 간 의사소통 장애

1 솔까말		2 정줄놓	3 흠좀무	4 뉴비	5 크리	6 항가항가	7 지못미	8 열폭	9 듣보잡
: 솔직히 까놓고 말해		: 정신 줄 놓았구나	: 흠 그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	: 신참	: 상황이 더 악화됨	: 하악하악의 오타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열등감 폭발	: 듣도보도 못한 잡것
78.4%		76.7%	75.9%	73.2%	69.5%	68.0%	67.7%	66.4%	61.8%
10 떡실신	11 뿌우~	12 하악하악	13 우왕ㅋ굳ㅋ	14 킹왕짱	15 막장	16 쩐다	17 고고씽	18 굽신굽신	19 안습
: 크게 충격을 받아 기절	: 의성어이자 감탄사	: 흥분할때 쓰는 수식어	: 아주 좋다	: 최고로 좋다	: 인생의 갈 때까지 간 사람, 상황	: '잘한다', '최고다'라는 의미	: 달리자, 가자	: 상대방에게 간곡히 부탁할 때 사용	: 눈에 습기찰 정도로 어이없을때
58.1%	52.4%	36.4%	33.2%	28.8%	25.7%	23.0%	17.9%	15.2%	12.6%

<표> 직장인이 모르는 우리말 순위

예의 없는 말/ 배려 없는 말

실태

예1: 담임이 오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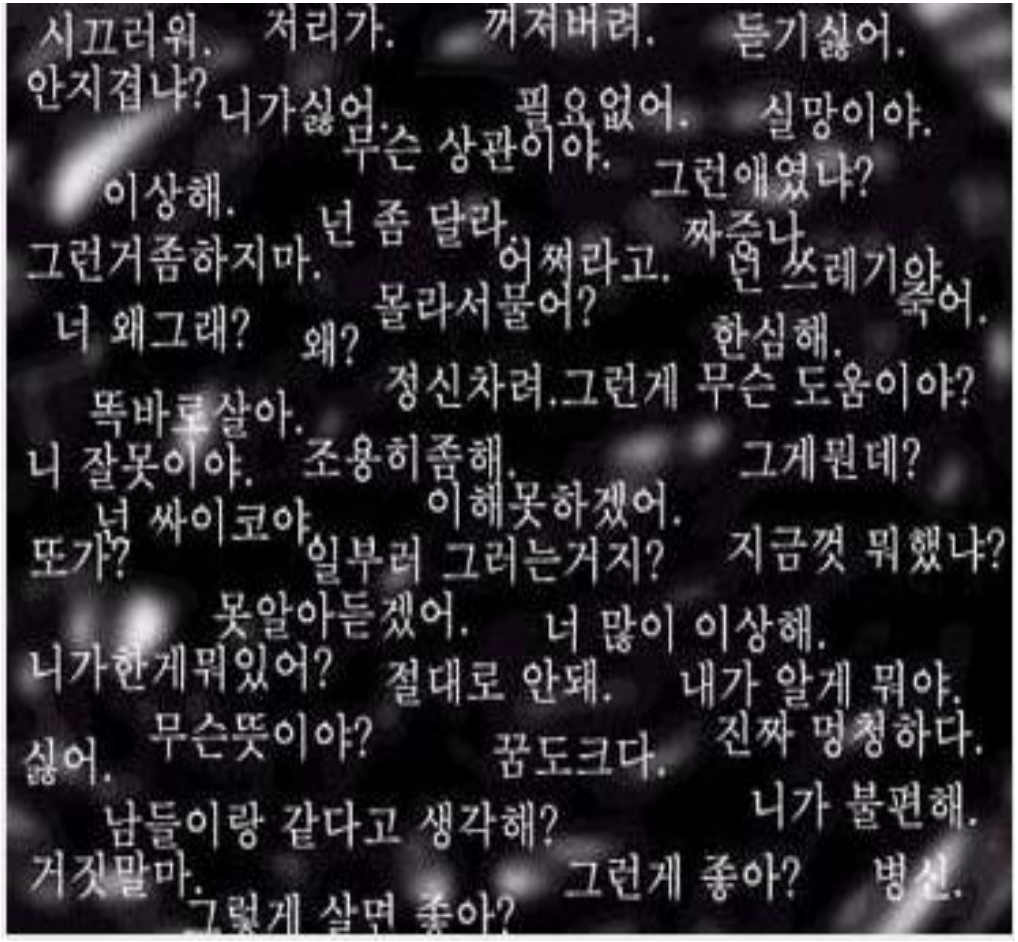
예2: 근현대사 쌤,
뭔 짓이래?

예3: 저 등신 같은 쌍놈 때매
우리만 혼났잖아.

예4: 미친, 대가리
졸라 크지 않냐?

언어 사용 실태와 부작용

부작용



-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어려움
-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서, 매사에 자존감이 낮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됨
- 세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가짐
- 극단적인 경우 삶을 포기함

말이 가진 힘

* MBC 다큐멘터리 – 말의 힘

말이 가진 힘

눈으로 확인한 말의 힘!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

-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 EBS 다큐프라임- 남과 여 :비호감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

* EBS 다큐프라임- 남과 여 : 호감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

-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축약어?
은어?
신조어?
우리끼리만 아는 말!

말이 안 통해!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

● 건강한 사고, 건전한 정신

서울 재동초 "서로 높임말을 쓰니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철수님 점심은 맛있게 먹었나요?", "영희님 어제 치른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화 같기도 하고, 어색한 높임말에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교생 모두가 이처럼 높임말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전교생 모두가 높임말을 사용한다.

이학교가 학생들에게 높임말을 생활화하도록 한 것은 올해 새 학기부터. 지난해 9월 부임한 이도선 교장이 적극 나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높임말 사용 운동을 주도했다. 이제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어서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반응은 뜨겁다.

이 교장은 "아이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서로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다 보니 욕설이 크게 줄었고, 그로 인한 다툼도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하루는 이 교장이 복도에서 아이들끼리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다른 아이가 높임말로 다툼을 말리니까 금세 서로 웃으며 화해했다는 것이다. 아이들끼리 다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생기는 오해와 불쾌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장은 "아이들이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느끼도록 매일 지도하고 점검하니까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면서 "언어 순화 효과는 물론 아이들 스스로 자존감도 키울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 삶의 긍정적 변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말' 로 성공했어요!

우리말의 주역인 2030

말의 빛

쓰면 쓸수록 정드는 오래된 말
닦을수록 빛을 내며 자라는
고운 우리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 빛
나를 내어 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르른 소나무 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용서하세요”라는 말은
부끄러워 스러지는
겸허한 반딧불 빛
나를 비우려고 내가 작아지는 빛

감사합니다!